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 매개효과 및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영문

동신대학교 한의과 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Double Mediating Effect of Ego-Integrity and Cultural Competenc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Wisdom

Young-Mun C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 효과와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J도, S 특별시, D 광역시에 소재한 14개의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대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21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Program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Hayes의 6번과 91번 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이 이중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을 지혜가 조절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기본심리욕구충족을 위한 노력과 지혜에 따른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과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for identifying double mediating effect of ego-integrity and cultural competenc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Wisdo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uccessful aging. The participants were 211 elderly people aged at least 60 from June 2020 to March 2021. Data were collection by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by Hayes' number 6 and 91 models using the SPSS/25.0 program and SPSS PROCESS MACRO. According to the study, the ego-integration and cultural competence were effected to double mediated in successful aging, and the ego-integration and cultural competence were effected to successful aging through moderated mediation by wisdom.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welfare policy and strategy for the elderly to enhance ego-integration and cultural competence by effort to satisfy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Key Words : Successful Ag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y, Wisdom

*Corresponding Author : Young Mun Cho(cymun@hanmail.net)

Received July 30,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August 2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화는 생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발달단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다[1]. 인간은 이러한 노화과정에서 신체구조와 기능감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축소, 경제적 능력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 축적에 의한 행동과 자아인식 발달 등 긍정적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1,2]. 인간 삶의 과정은 8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당면하는 발달과업을 완수할 때 성공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특히 노년기의 성공적 발달과업 완수로 자아통합이 이루어지고 성공적 노화에 이르기 때문에 노화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을 이루는 과정이다[2,3].

성공적 노화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면서 개인이 삶에 대한 선택과 노력, 적절한 환경통제를 통하여 노화를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4,5]. 인간은 이러한 성공적 노화과정을 통하여 자아통합을 이루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2,3].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신체-정신적 건강상태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사회적지지, 사회활동, 지혜, 기본심리욕구 등의 사회-심리적 요인까지 매우 다양하다[6,7,8]. 특히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메타분석 한 결과, 심리적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하여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다[9,10].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요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심리특성과 성공적 노화에 관련된 긍정적 심리변인 및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자기결정성 동기는 인간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며, 개인 내부에서 발생 되는 내재적 동기와 외부에서 발생 되는 외재적 동기로 구분한다[11]. 내재적 동기는 개인의 흥미와 즐거움에 근거하여 환경을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전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생동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으로 구성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자극되어 자기결정성 동기에 의한 자기결정성 행동이 유발된다[11].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로 주변 환경의 통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통합된 가치와 의지에 따른 행동을 통해 인정받을 때 충족되는 욕구로 기본심리욕구의 핵심 욕구이다[11]. 유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효율성을 느끼려는 욕구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감과 효능감 등을 느낄 때 충족된다[11]. 관계성은 타인과의 유대감,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돌봄과 수용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충족된다[11]. 이러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는 노인의 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성공적 적응과 수용을 통하여 성공적 삶에 이르게 한다[6,11,12].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신체적 건강상태를 잘 관리하는 사회 적응력이 있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건강, 안전 등의 욕구충족 외에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욕구와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13]. 특히 노인의 보편적 삶의 질이나 성공적 노화는 노인 개인의 심리적 상황과 속한 사회문화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심리적, 문화적 배경이 뒷받침된다[13-15]. 이에 따라 노년기의 여가활동 등의 문화활동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13,14]. 노인의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신체활동이 포함된 취미활동, 봉사활동, 정치활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과 지식, 취미, 소양 등 문화 관련 요인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13-15].

인간의 지혜는 개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자아통합이나 절망을 느끼게 되며 절망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획득한다. 이러한 지혜는 개인의 통찰력과 판단에 영향을 주어 노년기 발달과업으로 심리적 성숙을 이루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8,17]. 현재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5.7%이며 2025년 20.3%, 2060년 4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역시 2015년 남성 79세 여자 85.2세, 2016년 남자 79.3세 여성은 85.4세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8]. 그러므로 증가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긍정심리 변인 및 자기결정성 행동과 관련 있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 간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효과와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 간의 구체적인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 매개효과 및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S특별시, G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대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인지적, 신체적 장애가 없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문해력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답을 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 연구에서 중간효과(effect size) .15,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1-\beta$)=.95, 예측변수 14개(일반적 특성 9개,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를 선정하여 산출한 결과 204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배부된 225부의 설문지 중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 중 작성을 거절한 14부를 제외한 211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노화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은 상태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과 Shin(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9].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13문항, 자녀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8문항,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3문항,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6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4 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다.

2.3.2 기본심리욕구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생득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의미한다[20]. 본 연구에서는 Ryan과 Deci가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 Scale; BPNS)를 Jung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기본심리욕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21]. 이 척도는 자율성(autonomy) 6문항, 유능감(competency) 6문항, 관계성(relatedness)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6, 자율성 .71, 유능감 .86, 관계성 .79 이었고[21],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7 였으며, 자율성 .71, 유능감 .87, 관계성 .77 이었다.

2.3.3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은 인간이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과 죽음에 대한 수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년기의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의미한다[22]. 본 연구에서는 Kim(1989)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통합감 척도를 Park(2016)이 수정 보완한 자아통합감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2,23].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91이었으며[2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 이었다.

2.3.4 문화역량

문화역량은 여러 문화적 요소들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태도, 기술적 체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wak 등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4]. 이 척도는 생활 문화역량 9문항, 예술 문화역량 9문항, 사회 문화역량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역량의 Cronbach's alpha 값은 .98 이었으며, 생활 문화역량 .95, 예술 문화역량 .97, 사회 문화역량 .96 이었으며[25], 본 연구에서 문화역량의 Cronbach's alpha 값은 .97, 생활 문화역량 .90 예술 문화역량 .93, 사회 문화역량 .94 이었다.

2.3.5 지혜

지혜는 삶의 전 과정에서 발생 되는 여러 문제를 심리·사회적 균형과 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 Sung 등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7]. 이 척도는 공감적 정서 11문항, 자기성찰 9문항, 인생극복 경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인지한 지혜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으며[17],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1040708-202005-SB-017)하에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J도, S특별시, G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종합대학 14곳에서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공고 후 우선으로 연구에 지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된 2명의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 개개인에게 연구의 목적, 소요 시간,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유지, 자료사용 방법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를 서명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대일 설문조사 시 COVID 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설문지 작성 후 수면 양말을 사례품으로 전달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과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는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둘째,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효과는 Hayes(2018)의 6번 모델을,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 관계에서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91번 모델을 적용하여 Process macro 3.4.1로 검증하였다[26]. 다중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통합감과 지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분석하였다[26].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78(37.0)
	Female	133(63.0)
Age(yr)	60-65	99(46.7)
	66-70	47(22.3)
	71-75	34(16.1)
	76-80	18(8.5)
	≥81	13(6.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65(78.2)
	Divorce	14(6.6)
	Bereavement	29(13.7)
Education	≤ Elementary	33(15.6)
	Middle school	44(20.9)
	High school	55(26.1)
	≥ College	79(37.4)
Religion	Christianity	70(33.2)
	Catholicism	37(17.5)
	Buddhism	43(20.4)
	have no religion	54(25.6)
	Other	7(3.3)
Living type	Alone	35(16.6)
	With spouse	104(49.3)
	With spouse & offspring	51(24.2)
	With offspring	19(9.0)

Number of children	Other	2(0.9)
	1-2	95(45.0)
	3-4	100(47.4)
	5-6	14(6.6)
Allowance (10,000)	≥7	2(0.9)
	≤50	113(53.6)
	51-100	63(29.9)
	101-150	15(7.1)
	151-200	10(4.7)
	≥201	10(4.7)
Health status	Not very healthy	7(3.3)
	Unhealthy	26(12.3)
	Average	87(41.2)
	Healthy	68(32.2)
	Very healthy	23(10.9)

본 연구대상자는 총 211명으로 남자 78명(37.0%), 여자 133명(63.0%)이었고, 연령 별 분포는 60세에서 65세가 99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66세에서 70세가 47명(22.3%), 71세에서 75세가 34명(16.1%), 76세에서 80세가 18명(8.5%), 81세 이상이 13명(6.2%)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165명(78.2%)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 79명(37.4%), 고졸이 55명(26.1%), 중졸 44명(20.9%), 초졸이나 무학이 33명(15.6%)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70명(33.2%), 무교 54명(25.6%), 불교 43명(20.4%), 천주교 37명(17.5%), 기타 7명(3.3%)이었고, 동거가족의 형태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대상자가 104명(49.3%),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51명(24.2%), 혼자가 35명(16.6%), 자녀와 함께 거주하

는 대상자가 19명(9.0%), 기타가 2명(0.9%)이었다. 자녀의 수는 3명에서 4명이 100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7명 이상이 2명(3.3%)으로 가장 적었다. 건강상태는 178명(84.4%)의 대상자가 보통 이상으로 좋다고 하였다 (Table 1).

3.2 성공적 노화, 기본심리욕구, 자아통합감, 문화역량, 지혜 간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성공적 노화와 기본심리욕구($r=.64, p<.001$), 자아통합감($r=.75, p<.001$), 문화역량($r=.71, p<.001$), 지혜($r=.66, p<.001$)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본심리욕구와 자아통합감($r=.68, p<.001$), 문화역량($r=.58, p<.001$), 지혜($r=.52, p<.001$)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r=.72, p<.001$), 지혜($r=.60, p<.001$) 간의 관계와 문화역량과 지혜($r=.71, p<.001$)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3.3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효과

연구결과 기본심리욕구는 자아통합감($\beta=.628, p<.001$), 문화역량($\beta=.596, p=.007$), 성공적 노화($\beta=.405,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통합감은 문화역량($\beta=2.219, p<.001$)과 성공적 노화에($\beta=.890, p<.001$), 문화역량은 성공적 노화($\beta=.20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beta=1.367, p<.001$)보다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이 추가되었을 때

Table 2. Correlations Successful Ag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Ego-integrity, Cultural Competence and Wisdom.

Variable	SA	BPN	x1	x2	x3	EI	CC	y1	y2	y3	Wisdom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SA	1										
BPN	.64***	1									
x1	.29***	.75***	1								
x2	.65***	.78***	.27***	1							
x3	.61***	.86***	.51***	.59***	1						
EI	.75***	.68***	.34***	.67***	.61***	1					
CC	.71***	.58***	.19**	.69***	.50***	.72***	1				
y1	.69***	.54***	.19*	.66***	.45***	.70***	.92***	1			
y2	.64***	.52***	.16*	.63***	.46***	.63***	.93***	.81***	1		
y3	.65***	.55***	.19**	.63***	.48***	.65***	.91***	.75***	.78***	1	
Wisdom	.66***	.52***	.15*	.62***	.49***	.60***	.71***	.63***	.62***	.68***	1

SA=Successful Aging;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EI=Ego-integrity; CC=Cultural Competence; x1=Autonomy; x2=Competency; x3=Relatedness; y1=Living culture; y2=Art culture; y3=Social culture * $p<.05$, ** $p<.01$, *** $p<.001$

기본심리욕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beta=.405$, $p<.001$)이 감소하여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ouble Mediating Effect of Ego-Integrity and Cultural Competency

Path		β	SE	t	p
BPN	EI	.628	.046	13.482	.000
BPN	CC	.596	.219	2.712	.007
EI	CC	2.219	.238	9.299	.000
BPN	SA	.405	.120	3.376	.000
EI	SA	.890	.152	5.841	.000
CC	SA	.202	.037	5.436	.000
Total effec BPN->SA		1.367	.111	12.320	.000

SA=Successful Aging;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EI=Ego-integrity; CC=Cultural Competence

또한 이중매개 효과에 대한 효과 검증결과 전체 매개 효과의 크기는 .962(.773-1.163) 이었으며, 단순 매개효과 M1은 .559(.354-.727), M2는 .120(.027-.237)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Verification of Dual Mediation Effect of Ego-Integration and Cultural Competence

Path	β	SE	LLCI	ULCI
M1(BPN- EI-SA)	.559	.110	.354	.727
M2(BPN-CC-SA)	.120	.054	.027	.237
BPN-EI-CC-SA	.282	.078	.137	.444
Total Indirect Effect	.962	.100	.773	1.163

SA=Successful Aging; BPN=Basic Psychological Needs;
EI=Ego-integrity; CC=Cultural Competence

3.4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효과검증

노인의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지혜가 조절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아통합감과 지혜의 상호작용은 문화역량에 유의미한 부정 영향을 주었고, 상호작용에 따른 R²의 증가량도 유의미하여 조절효과가 있었다(Table 5).

또한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지혜의 조건부 간접효과(기본심리욕구-자아통합감-문화역량-성공적 노화)는 지혜 값이 M-1SD(74.066)부터 M+1SD(92.222)까지 유의미하였다. 즉 지혜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문화역량을 경유하여 성공적 노화로 가는

경로를 조절매개 하였다(Table 6).

Table 5.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Wisdom

	Path	β	SE	t	p
BPN	SA	.405	.120	3.376	.000
	EI	.890	.152	5.841	.000
	CC	.202	.037	5.436	.000
BPN	EI	.628	.046	13.484	.000
	CC	.247	.199	1.212	.228
	EI	4.096	1.138	3.597	.004
Wisdom	CC	2.849	.682	4.177	.000
EI x Wisdom	CC	-.029	.012	-2.293	.022
		R ²	F	P	
		.009	5.261	.022	

Table 6. Verification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Wisdom

Wisdom	β	SE	LLCI	ULCI
M-1SD(74.066)	.0243	.070	.114	.390
M(83.644)	.2072	.0585	.100	.330
M+1SD(92.222)	.171	.050	.083	.277

U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LLCI=boot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4. 논의

본 연구 결과 노인의 기본심리욕구는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을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본심리욕구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보다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을 매개한 간접효과가 더 감소하여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 매개효과도 확인되었다. 즉 노인이 지각하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증가되고, 증가된 자아통합감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주어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며[7,8,12,27], 노인이 지각하는 자율적인 삶이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등이 성공적 노화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6,28]. 또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기본심리욕구와 문화역량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의 만족감이 심리적 행복감, 죽음 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12,28,29].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은퇴와 건강 악화 등으로 소외되고 협소해진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노인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사회활동을 하게 한다[11,16,30,31]. 노인은 이러한 자기결정성 선택과 그 결과로 노화과정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수용하고 적응하면서 자아통합감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2,27,31]. 그러므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자아통합감 형성을 위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증진을 위한 기본심리욕구 충족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의 충족과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은 상실된 역할에 대한 긍정적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자유롭고 유익한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12,20].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창조하고 감상하며, 향유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의 문화역량이 강화되어 활기차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4,32,33].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은 문화역량을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여가활동 등의 문화활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27,34]. 또한 음악활동 등 문화활동이 실험집단의 자아통합감 변화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3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이 문화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과 달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이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연구마다 상이하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이 동일하게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였고, 각 대상자가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이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거나 외생변수를 증화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혜는 문화역량에 영향을 주었고, 자아통합감과 지혜의 상호작용은 문화역량에 영향을 주었으며, 기본심리욕구-자아통합감-문화역량-성공적 노화의 경로에서 지혜의 조건부 간접효과가 M-1SD 부터 M+1SD까지 유의미하여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을 경유하여 성공적 노화를 조절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

인의 자아통합감이 지혜에 영향을 미치며, 지혜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8,36]. 또한 지혜와 성공적 노화가 각각 노인의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의 참가 빈도와 참가 기간에 영향을 준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37].

노인은 삶의 과정에서 신체적, 사회심리적 변화로 인한 스스로의 한계와 문제를 수용하고 잘 극복하여 지나온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 수용 및 적응의 과정에서 자아통합을 이루고 지혜가 향상된다[27,31]. 그러므로 지혜로운 노인은 노화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와 현재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극복하고, 긍정적인 노화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으로 성공적 노화에 이른다[36-38]. 특히 지혜로운 노인의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위축된 사회관계망을 개선하게 되고, 생산적 활동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생활 만족도와 긍정적 노화태도를 증진시켜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기본심리욕구 충족에 영향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이 이중 매개하고,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상호작용에 지혜가 조절 매개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충족 정도를 파악하여 성공적 노화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지혜에 따른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과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 매개효과와 지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기본심리욕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이 추가되었을 때 기본심리욕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어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 매개효과가 증명되었다. 또한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의 이중매개를 지혜가 조절매개 하는지 검증한 결과 지혜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문화역량을 경유하여 성공적 노화로 가는 경로를 조절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 간의 일관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거나 외생 변수를 증화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노인의 지혜 정도를 단계별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셋째, 노인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지혜에 따른 자아통합감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과 전략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

- [1] M. G. Oh. (2021). The Mediated Effect of SOC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Aging Attitude and Successful Aging. [master's thesis]. Seoul: Dankook University.
- [2] J. H. Oh, J. N. Kim. (2017). The Influence of a Sense of Loss, a Sense of Coherence and Depression on Ego-integrity in the Elderly: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3), 687-710.
DOI : 10.17315/kjhp.2017.22.3.012
- [3] E. H. Eric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 [4] J. W. Rowe & R. L. Khan.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4811), 143-149.
DOI : 10.1126/science.3299702
- [5] Y. S. Lee, H. J. Jun, H. Y. Park & S. N. Joo. (2020).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Spousal and 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6), 1287-1305.
DOI : 10.31888/JKGS.2020.40.6.1287
- [6] H. Y. Kim & B. K. Chung. (2015). A Research on Demographic Parameters, Life Style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ubjectiv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2), 295-313.
- [7] N. S. Kim. (2014). Effects of Vital Power Based on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g in Early Participants of Life Time Sports. [master's thesis]. Cheonan: Dankook University.
- [8] M. J. Nam & Y. M. Cho. (2018).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isdom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0(1), 70-78.
DOI : 10.7475/kjan.2018.30.1.70
- [9] S. H. Kim, S. H. Park & G. S. Park (2016).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in Korea.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Autumn Conference* (310). Seoul : Korea Society of Nursing Science
- [10] Y. J. Jeong, Y. S. Chong, N. Y. Yu, B. A. Kim & H. J. Shin (2015). A Meta-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and Sub Dimension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3), 627-643.
- [11] E. L. Deci & R. M. Ryan.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49(3), 182-185.
DOI : 10.1037/a0012801
- [12] Y. M. Cho & S. L. Kang. (2019).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39-348.
DOI : 10.14400/JDC.2019.17.10.339
- [13] B. J. Jeon. (2017).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Successful Aging by Family Type of Elderly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Network. *Journal of Wellness*, 12(1), 203-216.
DOI : 10.21097/ksw.2017.02.12.1.203
- [14] H. K. Han. (2018). Effects of the Elderly's Human,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s on Successful Aging: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Engagement in Social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8(4), 981-997.
DOI : 10.31888/JKGS.2018.38.4.981.
- [15] S. H. Shin. (2020). Relationship among Matured Aging Attitude, Depression,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articipating in Dance-Oriented Physical Activity: Focused on Line Dance and Rhythmic Gymnastic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0), 460-477.
DOI : 10.14400/JDC.2020.18.10.469
- [16] S. O. Choi. (2019). Effects of Leisure Activity in Elderly Welfare Center on Successful Aging - The Mediator Effect of Self-efficacy and Moder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Crisisonomy*, 15(11), 89-100.
- [17] Sung KW, Lee SY, Park JH. (2010). Scale development of Wisdom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1), 65-80.
- [18]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tatistics for estimated future population 2017-2067 in Korea [Internet]. Seoul: Statistics for estimated future population:2019 [cited 2021 July 1]. Available from: <https://eiec.kdi.re.kr/search/search.do?kwd=%EC%9E%A5%EB%9E%98%EC%9D%B8%EA%B5%AC%ED%8A%B9%EB%B3%84%EC%B6%94%EA%B3%84%3A%202017%E2%88%BC2067%EB%85%84&category=>
- [19] M. H. Kim & K. R. Shn.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 [20] R. M. Ryan & E.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DOI : 10.1037/0003-066X.55.1.68
- [21] Y. S. Jung.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Basic

- Psychological Needs, Sensation Seeking, Flow, and Exercise Addic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 [22] J. S. Kim. (1989). A study of Social Activities and Ego Integrity of the Aged. *Health & Nursing, 1(0)*, 20-31.
- [23] E. H. Park. (2016). Mediating Effects of Ego-Integ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of Elders and Successful Aging; Focused using Senior Welfare Cent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 [24] S. G. Kwak, M. J. Kim & H. Y. Ahn. (2014). Lifelong Learning and Happiness index in Seodaemun-Gu Citizen. Seoul: Seodaemun-Gu; 2014.
- [25] E. K. Kim. (2018).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Enhancing Cultural Competence of the Elderl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3)*, 111-134.
DOI : 10.22251/jlcci.2018.18.3.839
- [26] A. F. Hayes.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27] S. L. Kim & H. O. Oh. (2016).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nd Ego Integrity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5(6)*, 509-20.
- [28] S. J. Moo & S. H. Park.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Experiences, Leisure Satisfaction, Happiness and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People. *Tourism Research 43(4)*, 45-70.
DOI : 10.32780/ktidoi.2018.43.4.45
- [29] G. E. Kim & E. J. Shin. (2016). Ego Integrity of the Elderly - Focusing on Mediator of Self-actualiza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109-136.
- [30] U. Wiesmann & H. J. Hannich. (2012). A salutogenic analysis of developmental tasks and ego integrity vs. despai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3(4)*, 351-369.
DOI : 10.2190/AG.73.4.e
- [31] J. Y. Koo & Y. H. Lee. (2018). The Effect of Couple's Leisure Activity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Focusing 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and Ego Integrat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8(4)*, 905-922.
DOI: 10.31888/JKGS.2018.38.4.905
- [32] H. Y. Park & S. Heo. (2019). Determinants of Leisure Tim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Cultural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7(4)*, 31-55.
DOI : 10.22879/slos.2019.17.4.31
- [33] G. H. Kim. (2019).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6(2)*, 127-154.
- [34] J. S. Oh. (2019).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Intermediary of Social Activity and Ego-Integr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30(1)*, 87-111.
DOI : 10.16881/jss.2019.01.30.1.87
- [35] Y. M. Yoon & H. Y. Park. (2018). Effects of Song-Autobiography Activities on Sense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4(1)*, 27-46.
- [36] D. H. Kim & J. S. An. (2013). The Relationship among Wisdom, Family Relationship, Generativity, and Ego-Integrity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2)*, 381-395.
- [37] S. B. Choi & Y. H. Lee. (2017). The Relationships Between Wisdom and Successful Aging Among Leisure Activity Types of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4(1)*, 1-12.
- [38] E. R. Kim & A. K. Byun. (2018). Effects on the Successful Aging and Life Satisfaction due to the Wisdom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3)*, 411-438.
DOI : 10.22143/HSS21.8.3.23

조영문(Young-Mun Cho)

[장학원]



- 2004년 3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8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1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21년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 순환기계 만성질환
- E-Mail : cymun@dsu.ac.kr